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 선정 비리 드러나

감사위, 수사 의뢰 검토...내일 감사결과 발표 경찰, 첩보입수 내사 착수·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의혹으로 제기됐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 유출 등 일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탈락업체가 심사 과정에 이의

를 제기하고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잡음이 확산하자 지난달 16일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일부 탈락업체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심사위원 선정과정부터 평가결과까지 내부 행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 결과 유출 여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하지 않고 일부 위법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탈락업체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계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의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량평가는 업체들의 신용도나 사업수행능력, 사업시행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공무원이 평가관이다. 계량평가 배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배점 100점 가운데 50점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 심사단 13명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전문가 인력풀 78명의 명단이 건설업계에 노출됐다는 내용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업체 일부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전 금품 로비를 했다는 루

머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오는 11일께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감사에 들어가면서 종료 시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안서 접수 업체 15곳 모두에게 보냈다. 광주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사를 하더라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감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일부 위법한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겨울철 재난종합대책 추진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 목표

전남도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도, 유관기관 실무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도 24개 협업부서와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KT 등 2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관리체계와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 겨울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한파’가 정식 자연재난에 편입돼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밀집 골목길 시설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젊은층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발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는 한파 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 경로당 5,700여개와 마을회관 등 총 6,000여개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매월 40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로 제설 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액상제설제 사용을 종전 30%에서 70% 정도로 확대한다. 담양한재, 화순큰재 등 심한 고갯길 2곳에 자동염사분사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2019년에도 5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스승강장에 방풍, 온열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생활관리사 등이 중증 취약계층 2,097명을 1대1로 돌보게 된다. /정근산 기자



김대중 마라톤 대회 2018 김대중마라톤대회가 9일 오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종석 목포시장, 박지원·서삼석·최경환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출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중화권 수출상담회 4천500만 달러 수출 협약

45개 업체 참여 수산식품 등 인기

전남도는 9일 “최근 중국, 홍콩, 타이완 등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는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협조로 진행됐다. 올해 한해 동안 시장개척단과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만난 바이어 26개사(중국 22사, 홍콩 3사, 대만 1사)와 전남지역 45개 업체가 참여했다. 수출상담 결과, 해남의 빨간배추 가공업체와 중국 지린성 식품회사의 500만 달러 MOU를 비롯해 총 41건(농식품 16건, 수산식품 13건, 공산품 12건) 4,532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반건조우렁, 건조매생이 등 전남의 우수 수산식품은 다음 달부터 수출 주문을 하겠다는 구두계약도 함께 이뤄져 최근 주춤했던 중국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 내 한국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 천연화장품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참초, 아로니아, 모링가 등 건강식품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사드 갈등으로 주춤했던 중국 수출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현지 판매장 운영,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확대 추진해왔다. 선정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중화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는 도와 기업이 올 한해 동안 열심히 함께 노력의 성과물”이라며 “이번에 체결한 수출 MOU 제품이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강진서 올 겨울 첫 AI항원 검출 ‘비상’

저병원성 판명...방역 초소화대 등 차단 총력

전남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 겨울 첫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진군 만덕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항원은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지만, 전남도는 AI 발생 우려가 높은 중오리농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오리 농장 17곳에는 1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방역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해 소독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시군에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 예

비비 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오리 사육농장에는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다. 도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지원해 지난 10일부터 2회 생석회를 일제 살포했으며, 오는 12일 3차 일제 살포에 나선다.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영암호, 고천암 주변 도로 등에는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13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소독을 한다. 또 철새 도래지에 통제초소 5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철새 예찰 감시요원 33명을 채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민선 7기 광주시 조직개편 의회서 제동

시의회 “자치행정국 선임 부서 재검토”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가 부서 간 갈등을 빚은 자치행정국 산하 선임 부서 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해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자치행정국의 선임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6일 시가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한다고 했지만 같은 달 29일 총무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자치행정국 조직표에서 맨 위에 위치하는 선임 부서를

기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가 반발하자 부서 간 논의를 거쳐 총무과를 선임 부서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인원을 기존 3,636명에서 3,664명으로 늘리고, 4실 6국 3본부 62과이던 기구를 4실 7국 3본부 67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 확대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자위는 시의 추가 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 요청을 한 뒤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14일 본회의 의

결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은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처음 가져온 안과 달라지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심사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취지에 맞춰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데 다시 바뀐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부도 조직개편이 시급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안을 올리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을 다시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없다”며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상임위,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에 의원들에게 과정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이웃의 작은 바늘, 따뜻한 행동하

찾아가는 창업·경영 서비스

도구가 이 일 자리를 찾아드립니다

OK! Call-me~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창업지원센터
Tel. 062-608-3990-1 Fax. 062-608-2719

상담전화: 062-608-3992
찾아오시는 곳: 동구청 앞 서남로주민센터 2F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지원대상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신규 고용기업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신청 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12개사 -중소기업 특허디자인팀,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사물레이션 지원 : 10개사
---	--

문의: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광양시가 함께 합니다.

광양시
OHWANGSI

희망일자리센터 061) 797-3352